

의약분업, 항생제 사용감축 효과적

2002년 1000명당 3.34DDD에서 2003년 0.28DDD로 ... 사용무지 여전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성옥 박사는 12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최한 <국가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사업 비전 보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 사용실태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의원 외래 항생제 사용량이 하루 1000명당 0.34DDD에서 2003년에는 0.28DDD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DDD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항생제 사용기준이다.

또 성인 338명에 대한 조사 결과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복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61.5%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독감과 인후염도 항생제를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각각 20.8%, 22.8%에 그쳤다.

항생제를 사용함에 따른 내성 강화에 대해서는 55.7%가 <심각하다>, 27.1%는 <아주 심각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나 17.22%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3% 정도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으며 항생제를 세균감염 치료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24%에 그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균(박테리아)은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생명체인 반면 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생명력을 갖는다.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2년 1541톤에서 2003년 1439톤, 2004년 추정치 1557톤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은 돼지, 닭, 수산용, 소 순이다.

<화학저널 2004/12/28>